

혼혈아 외부화 프로세스와 대중문화*

— 경제성장기 일본사회의 혼혈아 표상

朴利鎭**

- | | |
|-------------|--------------|
| I. 들어가며 | IV. 소거되는 신체성 |
| II. 眞의 상징체계 | VI. 나가며 |
| III. 모성의 박탈 | |

● 국문초록

일본에서 1952년 ‘혼혈아논쟁’ 이후부터 1960년대 일명 ‘혼혈 붐’의 시대를 거쳐 ‘하프 담론’이 등장하는 1970년대까지 20년간 일본사회에 유포된 혼혈아 표상은 그들에 대한 고착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본인론이 크게 유행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단일민족으로서의 인종화가 강화되며 혼혈아들은 외부화되어 간다. 이러한 흐름을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의 인종주의가 갖는 ‘전후적 기원’으로 파악하여 그 구체적인 특징을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년대 혼혈아들이 하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탄생되는 구조에 작용하고 있는 대중들의 심급에 주목할 수 있었다. 점령의 기억이라는 과거의 상흔이 혼혈아의 상징체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일본사회의 재건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본인론의 유행처럼 사회문화적 자신감의 회복이 혼혈아 표상의 변주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식 인종주의를 이루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4234).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

있는 기원적 문제를 통해 현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차별과 편견이 단순히 서양식 인종주의를 답습한 형태라고 설명하는 시각을 비판하는 근거로 제안해 보았다.

주제어 : 일본식 인종주의, 혼혈 붐, 하프 담론, 일본인론, 대중문화 표상

I. 들어가며

1952년 ‘혼혈아논쟁’ 이후부터 1960년대 일명 ‘혼혈아 봄’의 시대를 거쳐 ‘하프 담론’이 등장하는 1970년대까지 20년간 유포된 혼혈아 표상은 혼혈아에 대한 고착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었다. 게다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인론이 크게 유행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단일민족으로서의 인종화가 강화되며 혼혈아들은 외부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의 인종주의가 갖는 ‘전후적 기원’으로 파악하여 그 구체적인 특징을 다양한 대중문화 속 혼혈아 표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혼혈아 봄이 하프 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전후 소비사회에서 긍정적인 백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백인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확대되었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소비사회에서 구매의욕을 높이는 긍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비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시모지 로렌스 요시타카(下地ローレンス吉孝)는 백인우위와 서양화로의 인종프로젝트로 평가하였다.¹⁾ 또 다카하시 다모쓰(高橋保)는 백인, 특히 하프 이미지의 상품화를 백인 숭배 지향의 일본인의 특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²⁾ 하프가 일본사회에서 타자화되면서 백인 숭배의 대상으로 적극 하프의 표상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당시 일본사회에서 서양화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편리한 생활양식의 수용으로서 서양문화를 받아들일 순 있지만, 그것이 굳이 왜 1970년대였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1970년대는 그간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일본사회가 강한 자신감을 회복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백인과 서양에 대한 동경’의 열기가 강했다는 지적은 오히려 선망이 아닌 자존감의 회복으로 인해 파생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제부흥과 함께 당시 단일한 민족주의적 혈통의 로직이 완성되면서 일본사회는 과거 ‘부정적 특수성’으로 이야기되던 것들을 ‘긍정의 특수성’으로 전환해가며 大國 이미지를 재편해갔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특수성의 상징계였던 흑인계 혼혈아에 내포되어 있던 ‘점령기의 기억’들 역시 재편될 필요가

1) 下地ローレンス吉孝, 『「混血」と「日本人」: ハーフ・ダブル・ミックスの社会史』, 青土社, 2018, 15~180면.

2) 高橋保, 『アジア問題における外国人』, 『講座・比較文化 アジアと日本人』, 研究社出版, 1977, 153면.

있었다. 負의 이미지가 소거된 상태의 혼혈아 표상이 1970년대 서양문화에 대한 소비 욕구와 맞물리면서 백인 지향의 ‘하프 이미지’가 소비되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대중문화 속의 혼혈아 표상을 검토하여 논의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필자는 점령기 이후 경제성장기를 거쳐 하프 담론이 등장하는 1970년대까지 일본사회에서 전개된 혼혈아정책과 혼혈에 관한 사회 담론의 흐름을 고찰한 바 있다. 점령 종료와 동시에 사회문제로 부각된 혼혈아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차별평등 원칙에 따른 일본사회로의 동화 방침을 취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는 혼혈아를 일본인화한 동화주의 원칙은 아동교육과 아동복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혼혈아문제를 아동의 문제로 제한해 사고했던 정부의 태도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아이들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이지메로 보고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태도는 결국 혼혈아문제를 외부화하게 되고 이것이 강력한 단일민족 사회론에 의해 지지되었던 일본인론과 조우하며 특이한 세계관을 낳았다. 일본인들에게 인종차별이란 없다는 논리와 함께 단일화된 일본인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론 속에서 혼혈아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배제된다. 1970년대 일본인론과 함께 혼혈아라는 표현을 대체하며 등장한 하프론이 유행하는데,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모두 아우르는 ‘하프’라는 표현은 혼혈아들을 자연스럽게 외국인으로 분류시켰다. 기존에 혼혈아라는 표현 속에 내재해 있던 패전과 점령, 빈곤과 차별과 같은 과거, 즉 역사성이 소거된 형태가 바로 ‘하프’였던 것이다. 혼혈아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담론적 언설은 일반 대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지난 논의 과정에서 지면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대중문화 속 일본인들의 혼혈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기존 논의의 충위를 보완하는 의의를 가지기도 한다.

본론 제2장에서는 강화조약 발효 이후 분출된 혼혈아논쟁을 시작으로 나타난 혼혈아에 대한 사회문제적 인식을 시대소설가로 유명했던 시시 분로쿠의 소설 『야단법석(やっさもっさ)』과 구사카와 슌의 단편소설 「촌락의 혼혈아(村の混血児)」, 그리고 아동복지가 다카세키 세쓰코의 저서 『혼혈아(混血児)』를 통해 고찰한다. 모두 발간과 동시에 영화로도 제작되며 화제를 모은 작품들로 혼혈아문제에 대한 당시 일반의 인식을 잘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이다. 제3장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전후복원의 신화

를 이루는 과도기로서의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고도성장기의 혼혈아 표상을 담아낸 영화 《기쿠와 이사무(キクとイサム)》와 『주간 겐다이(週刊現代)』와 같은 대중잡지의 기사들, 그리고 이치조 아키라(一条明)의 소설 「혼혈아(混血児)」를 살펴본다. 일본사회의 ‘성장’이라는 동시대적 공감대가 혼혈아들에게 투영되면서 그들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착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일본인론이 유행하며 하프 담론이 등장한 1970년대에 걸쳐 등장한 혼혈아 표상을 만화 《혼혈아 리카(混血児リカ)》와 소설 『인간의 증명(人間の証明)』, 그리고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검토한다. 모두 1970년대 주요 신드롬을 탄생시킨 텍스트들로 이전과 다른 혼혈아 이미지의 변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負의 상징체계

시시 분로쿠(獅子文六)³⁾의 작품 『야단법석(やっさもっさ)』은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1952년 2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188회에 걸쳐 게재되었던 신문 연재소설이다. 시시 분로쿠의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이 현대인으로서 리얼리티가 강하고,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풍자성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⁴⁾ 그만큼 시시 분로쿠가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매체적(장르적) 특성을 잘 이용

3) 본명은 이와타 도오(岩田豊雄, 1893~1969)로 연극연출을 할 때는 본명으로 활동했다. 요코하마 태생으로 1922년에 프랑스로 가서 신극 연구를 시작, 1925년에 귀국했다. 이후 『近代劇全集』번역 외에 수필이나 소설을 연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본격적인 소설 창작은 1934년 잡지 『新青年』에 『金色青春譜』를 게재하며 시작했고, 1936년 『報知新聞』에 최초의 신문연재소설 『悦ちゃん』이 크게 호평을 받으면서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 1941년 진주만공격 당시 九軍神의 하나를 묘사한 『海軍』으로 朝日文化賞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 때문에 패전 이후 전쟁협력작가로 추방가치 분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패전 이후에도 주로 신문연재소설을 쓰며 활동했고, ‘전후의 나쓰메 소세키’를 자칭할 정도로 인기를 구가했다. 전전, 전시기의 작품을 포함해 전후에 출간한 『てんやわんや』, 『大番』, 『自由学校』, 『娘と私』 등, 그가 연재, 발표한 소설은 대부분 영화화 또는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 그만큼 대중의 인기를 끌었으며 모두 시대성과 풍자성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4) 十返壺, 「解説」, 『やっさもっさ』, 新潮社, 1955, 349~354면.

했던 ‘시대 소설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등장인물별로 상징되는 전후 일본인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를 세간의 시각과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전개하는 그의 문체는 시대상을 캐릭터에 입혀 상당히 입체적이고도 꾸밈없이 날것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매력적이다.

소설『야단법석』도 1952년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창작되어 연재된 만큼 강화조약 발효(1952.4.28)를 주된 배경에 두고 있다. GHQ 점령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당대 일본인들의 인식 및 생활상을 통해 잘 담아내고 있다. 특히 소설의 주요 공간이 요코하마의 연합군 주둔지와 그 주변 일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⁵⁾ 자연스럽게 팡팡(パンパン)과 GI의 문제, 그리고 전후 최대의 사회문제 중 하나였던 혼혈아문제가 주요 소재이다.

혼혈아에 대한 표상은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시선과 일반의 아이들과 이질적인 외모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흑인 혼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되는 등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묘사들이 나온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소설에서 혼혈아에 대한 인식이 혼혈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던 아동보호소에 대한 시선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종의 戰後色을 띤 ‘점령특수 사업’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아이들을 빌리러 오기도 했다.”⁶⁾고 묘사된다.

“그 실제 숫자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가 봅니다. 어떤 잡지에서는 20만이라는 추정 수가 나오기도 ……”

“가령 20만이라고 해도 백 년 후를 생각하면 무서운 수치입니다. 중고시대에 고려인이나 중국인의 정주가 있어서 그들의 피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지만, 수치로 본다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번처럼 대량 혼혈은 유사 이래이고 일본인은 그야말로 일본적 대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리학자나 사회학자, 정치가나 소설가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⁷⁾

이 소설이 연재된 시기는 아직까지 정부가 ‘혼혈아실태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으로,

5) 네기시(根岸), 요코하마공원 미군야구장(横浜公園の米軍球場), 이소고(磯子), 난징가(南京街, 현재 요코하마 중화거리) 등이 주요 무대이다.

6)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新潮社, 1955, 190면.

7)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64면.

세간에서는 ‘혼혈아 20만설’이 회자되었고 이를 대중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⁸⁾ 유사 이래의 ‘대량 혼혈’로 인한 ‘일본적 대혁명’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심리적 충격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은 요코하마의 후타바엔(双葉園)이라는 이른바 ‘점령아라는 불행한 아이들의 수용소’에 근무하는 관리인 여성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수용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아원으로서 또 보호시설로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곳으로, 외모(毛色)가 다른 50여 명의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있었다. 당시 아이들을 수용하는 절차도 실제 기관의 위탁과정에 바탕하여 “유아원과 양호시설의 허가가 떨어지면 대부분 현이나 도의 아동상담소를 경유해 오는 아이들만을 수용”했고, “정부로부터 위탁비”⁹⁾도 지급받았다는 등의 내용처럼 실제 현실의 혼혈아 수용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수용하는 아이들은 “이소고(磯子) 해변에 버려진 아이”¹⁰⁾ 혹은 직업여성인 모친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시로 위탁을 한 아이들이었다. 따라서 후타바엔에 대한 인식도 처음에는 “치욕”처럼 인식했다. 당시 혼혈아를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생긴 역사적 오명과 연결해 생각하던 풍조가 후타바엔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혼혈아 문제가 불어지면서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마치 기라쿠센베나 슈마이처럼 요코하마의 “명물”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¹¹⁾ 신문기사에도 자주 등장하고 호기심에 찬 참관자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일본인 후원자도 점차 늘어났다.¹²⁾ 변화된 인식의 원인은 후타바엔의 사업이 기존의 일반 고아원과 다르게 국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연합군을 비롯해 외국인과 다양한 교섭을 하여 앞으로 더 넓고 깊게 그 관계를 추진해 나갈 거라는 기대감은 “패전 일본인에게 유리한 지반”처럼 보였고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이목을 끌고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사업”¹³⁾으로 생각되었다.

8) 박이진,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현대 일본 인종주의의 '전후적' 기원」, 『일본문화연구』 77,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109~128면.

9)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236면.

10)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40면.

11)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338면.

12)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50~51면.

13)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46면.

그뿐 아니라 당시 혼혈아 정책상의 논쟁거리였던 무차별원칙 역시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격리주의로 키우는 것이 그들의 행복일지 아니면 일본의 아이들 세계로 융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한탄하는 후타바엔 관련자들에게는 그것은 더욱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했다. “(내년에는-역자 주) 1호 원아 하마코를 포함해 그 이하의 아이들이 학령기를 맞는다. 이소고의 소학교에 통학시킬지, 원내에서 교육시설을 만들지,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했”¹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혈아 논쟁의 공허함은 소설 속에서도 미군 중위—어학 장교이자 일본 고전문학 및 민속연구자—와 문예평론가의 논의로 이어진다. 중위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반면, 평론가는 “문화의 혼혈이라던가 세계정부라던가 절대 평화 등 추상적인 이야기”로 대응한다.¹⁵⁾

“요컨대 뭐가 써, 일본의 전통문화는 별 것 없어요. 하찮은 데다가 유해하기 까지 해요.”

“그것은 굉장히 새로운 사고이지만 당신들이 자국의 전통문화를 부정하면서 서양유럽의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에 모순을 느끼지 않나요?”

“아니요, 외국 것이라면 폐해가 없지요. 부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늘 새로운 씨앗이지요.”¹⁶⁾

이른바 진보적인 근대주의자로 등장하는 문예평론가는 “낡은 피”의 “일본인 혈액”을 부정한다. 메이지 때 시작된 외국문화의 이입이 정신과 기술 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혈액” 그 자체가 유입되면서 “진정한 外物”의 섭취를 이루고 비로소 “일본의 개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¹⁷⁾ 따라서 후타바엔은 새로운 씨앗을 모아놓은 “귀중한 모종의 온실” 같은 곳이자 “밝은 휴머니즘” 그 자체라고까지 신뢰한다.

14)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99면.

15)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322면.

16)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321면.

17)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64면. 일본의 낡은 피를 천황제 지지와 은밀한 재군비와 연결해 비판하면서 이를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당시 후타바엔의 사업이 “불행한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일”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이 “전후색”의 반영이듯이 요코하마는 “점령경기, 점령특수”로 인해 경제적 활기가 일어났었다. 오히려 점령군의 철수 이후 불경기를 우려하는 모습들이 다수 묘사되기도 한다. 이른바 미군의 이동을 “강화발표 파문”이라고까지 말하는 요코하마 상인들은 후타바엔의 사업을 “전후적 상업책”¹⁸⁾의 연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혼혈아를 ‘새로운 씨앗’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전차 선반에 종이가방에 담겨 버려진 혼혈아 시체를 두고 “그런 아이가 태어난 사정. 인간이 저지른 아이의 오염”¹⁹⁾이라며 막상 후타바엔의 관리자 역시 ‘도대체 저런 아이가 태어난 것은 어느 나라의 책임이냐’는 생각을 한다. 특히 “머리카락과 피부색이 다른 아이 수십 명이 단체로 외출을 하면 이목을 끌고 변변한 일이 없다. 어른도 ‘팡팡의 아이네’라는 소리를 속삭인다. 하물며 어린아이는 서슴치 않고 원아한테로 다가와 큰 소리로 꾸짖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그런 일을 당한 여파는 피크닉에서 돌아와서도 며칠간 계속된다. 민감한 원아의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해서 애를 먹이기도 한다.”²⁰⁾ 무차별원칙하의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릴 적의 이지메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시각은 실제 아이들의 아주 단순한 ‘피크닉’ 순간에 무너져버린다. 정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여기서는 모든 아이가 평등해’라는 후타바엔의 정신을 선전하는데 피크닉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후타바엔 부모들은 봄 소풍 폐지를 제안할 정도로 현실의 상황은 괴리가 있었다.

당연히 혼혈아에 대한 인식은 ‘팡팡’이라는 직업여성에 대한 멸시와도 연결되었다. 당시 일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생학적으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따진다던가, 産制論의 입장을 들어 “우수한 유전질과 양호한 환경을 가진 사람끼리 생식행위를 해서” 양질의 아이만을 낳아야 한다는 인식 역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혼혈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동기가 좋지 않잖아. 또 부모의 소질도”²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혼혈아의 부친이 백인으

18)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132면, 180면.

19)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35면.

20)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99면.

로서 설령 그 유전자가 우수하다고 해도 그 모친이 “열악한 경우”이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어떤 심리학자가 원아 연구를 통해 혼혈아 중 우수한 지능지수의 아이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통한 넓은 의미의 산제론만이 절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민족이 취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소설 『야단법석』에는 강화발효로 점령이 종료되면서 붙어진 혼혈아문제를 당시 대중의 입장에서는 점령기 특수라던가 혁신적인 국제 사업으로 바라보기도 했음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혼혈아에 대한 인식이 정부 정책의 기본 노선이었던 아동복지와 무차별원칙이라는 교육정책과 같은 측면보다는 혼혈아의 모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 큰 상관성을 가졌음을 소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혼혈아정책에는 모친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와 달리 모친의 문제로 소급해 혼혈아들의 존재를 판단했던 대중의 인식은 당시 혼혈아문제를 아동문제로 한정해 보았던 정부 정책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더욱이 혼혈아에 대한 배타성은 지방 농어촌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당시 미군 주둔지 인접 마을을 소재로 한 소설 「촌락의 혼혈아(村の混血児)」(草川俊, 『グリーン・エージ』 5(1), 1955)는 중국에서 귀환한 복원병이 개간지 요시노무라(吉野村)에 입식하여 목격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이 입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노무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였는데 GI가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었다. 아이의 낙태문제를 두고 촌락민들이 추궁하기 시작하지만, 소녀는 출산의 뜻을 굳히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 그로부터 7년 뒤 소녀가 낳은 혼혈아(青い目の子)가 상해 사건을 일으키며 다시금 화제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기자로서 마을을 취재한 주인공은 결국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만약 이 상해 사건이 보도되면 7년 전 소녀의 임신 사실과 함께 촌락에서 혼혈아가 태어난 사실이 탄로나기 때문이다. 실제 7년 전에도 소녀의 임신이나 GI-Baby 출산 등 관련한 모든 사실을 촌락민들은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촌락에서 혼혈아가 나왔다는 소식이 퍼지면 “큰 타격을 입고 마을은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²²⁾이라는 막연한 공포심이 촌락민들을 엄습했기 때문이다.

21)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105면.

22) 草川俊, 「村の混血児」, 『グリーン・エージ』 5(1), 1955, 94면.



〈그림 1〉『混血児』영화
제작소개기사. 神奈川新聞
1953.4.25.4면

이 소설이 게재된 잡지 그린 에이지(グリーン・エージ)는 패전 후 목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긴급대책으로 구성된 삼림자원총합대책협의회(森林資源総合対策協議会, 1951년 1월 발족)의 기관지였다. 삼림자원을 보전하고 원활한 목재공급을 목적으로 편찬된 만큼, 합리적 목재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²³⁾ 간결한 문체로 르포르타주 성격을 띤 이 소설의 주인공이 개척일꾼의 경력을 가진 지역신문사 통신부원으로 설정된 것을 볼 때 촌락 공동체의 강한 연대의식을 선전하며 당시 일본의 ‘전후복원(개척) 사업’의 활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척지의 정보보다는 마을의 정체성을 뒤흔든 사건으로 ‘혼혈아 은폐’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 소설을 통해 당시 일본 도시와 지방 곳곳에서 진행된 복원사업과 개척사업의 중대성만큼이나 혼혈아문제가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혼혈아의 등장이 공동체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다가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1952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된 혼혈아문제를 아동복지의 관점을 포함해 모친의 불우한 환경까지 시야에 두고 다룬 다카세키 세쓰코(高崎節子)의 저서『혼혈아(混血児)』가 발간과 동시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 역시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전달한다.²⁴⁾

23) 예를 들어 「林業を動かす三つの力」「今や木材は挑戦する」「伸びる大東京への構想」「北海道の風倒木を現地に見る〈現地ルポ〉」「ソ聯ところどころ 写真集」 등이 같은 권호에 실려 있다.

24) 아동복지가 다카세키 세쓰코의 저작으로 발간 당시 ‘혼혈아에 대한 사회의 오해나 편견, 증오를 불식시킬 화제작’으로 평가받았다.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해서 달라진 일본인들의 혼혈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후반부로 갈수록 실제 혼혈아를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보호소들의 현황과 혼혈아와 그 모친들의 힘든 삶을 취재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박이진의 논문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참조.

1952년에 발간되어 바로 영화로 제작된 이 책의 문제의식은 당시 전쟁의 부수물로 인식된 혼혈아의 존재가 일본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유에 대한 사회문화사적 해명에 있다. 일본사회만의 ‘특이한 세계성’이라고 강조하는 다카세키 세쓰코는 당시 혼혈아문제를 서양문명, 서양인에 대한 동경, 즉 서양에 대한 권력화로 설명한다. 외국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결코 혼혈아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저서는 유사 이래 최초로 외국(서양)에 의한 점령 경험을 하게 된 일본이 점령이 끝난 후에도 혼혈아를 통해 負의 유산이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혼혈에 대한 인종주의적 시각이다. 혼혈아 존재 자체가 패전과 그로 인한 점령의 유산이라는 인식은 당시 일본사회의 보편적 시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사회문제화된 혼혈아는 흑인계 혼혈에 대한 우려로 모두 수렴되었다.²⁵⁾ 실제 수치상으로 볼 때 백인계 혼혈이 흑인계 혼혈보다 많았는데, 백인계 혼혈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흑인계 혼혈아를 대상으로만 문제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서에서는 무엇보다 백인계와 흑인계 혼혈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 사회인식이 그대로 담겨있다. ‘위를 향한 납작하고 큰 코, 뒤집힌 아랫입술, 소름끼치는 납색의 검은 피부’라는 흑인계 혼혈에 대한 고정적 묘사가 답습될 뿐 아니라, 백인계 혼혈아의 모친은 득의양양하게 지내는 한편 흑인계 혼혈아의 모친은 온갖 수치스러움을 안은 채 죄인처럼 고립되어 생활하는 현실을 전달한다. ‘영원히 고통받을 흑인계 혼혈아’에 대한 우려와 동정을 담아 그들의 희망적 미래를 기원했던 이 저서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흑인계 혼혈에 대한 인종주의적 표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조약 발효 이후 대중문화 속에 등장한 혼혈아 표상은 주로 그 모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 공동체의 배타성을 통해 당시 부정적이었던 일본사회의 혼혈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패전과 점령이라는 負의 역사를 혼혈아 존재 자체와 오버랩했던 일본 대중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혼혈아문제가 어떠한 여과장치도 없이 서양식 인종 구분에 따라 흑인계 혼혈아 차별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당시 흑인계 혼혈아의 차별구조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도 앞의 박이진 논문 참조.

Ⅲ. 모성의 박탈

1959년 혼혈아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 《기쿠와 이사무(キクとイサム)》는 혼혈아가 일본 산간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각본가 미즈키 요코(水木洋子)가 당시 혼혈아들이 일본(日本の土)에 과연 얼마나 동화될 수 있을지 추궁해 보고 싶었다는 말처럼, 패전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호쿠(東北)의 농촌을 무대로 미국인 아버지(GI)와 일본인 어머니(팡팡)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도시와 비교해 외국인은 물론이고 흑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 농촌 지역을 무대로 흑인 혼혈아의 전형적인 모습—검은 피부, 심한 곱슬머리, 두터운 입술, 커다란 신체—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였다. 무엇보다 캐스팅 과정에서 실제 흑인계 혼혈아인 다카하시 에미코(高橋恵美子)를 모델로 그녀의 ‘밝은 에너지’를 관찰해서 주인공 기쿠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본고에서는 영화에서 기쿠가 보여주는 여성의 신체성에 중점을 두고 스토리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기쿠는 그녀를 키워 준 할머니뿐 아니라 마을 이웃들로부터 검은 피부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염려와 함께 불가에 귀의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기쿠는 피부색에 대한 우려 외에도 당시 포레 소녀들과 비교해 상당히 다른 신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온다. 학교에서 소년들을 압도하는 힘은 물론이고 스피드도 빨라서 골목 대장 역할을 하였고, 커다란 신장뿐 아니라 거대한 체중은 심지어 자살시도를 할 때도 무게 때문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나올 정도이다. 기쿠의 존재 자체를 거대함과 압박감을 주는 신체로 묘사하는 것은 점령군의 권력 혹은 外來人에 대한 위화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가노 미키요(加納美紀代)는 이 영화 속 흑인 혼혈아의 표상이 여성화되고 또 사춘기 소녀의 슬픔이 이야기의 중심임에 주목하며 흑인이 모성의 표상으로 묘사된 점이 이 영화가 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남동생 이사무는 무사히 입양절차를 통과해 미국으로 가게 되고 혼자 남게 된 기쿠는 위화감을 주는 신체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점차 더 차별받는 존재가 된다. 게다가 이웃이 잠시 맡긴 아이를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을 공동체로부터 더욱 핍박당한다. 이

26) 加納美紀代, 「「混血児」問題と単一民族神話の形成」, 『占領と性・政策・実体・表象』, インパクト出版会, 2007, 227면.



〈그림 2〉《キクとイサム》
영화포스터, 1959년 상영. 감독
今井正, 출연 高橋恵美子,
奥の山ジョージ, 北林谷栄

사건을 요시무라 이즈미(吉村いづみ)는 ‘모성에 대한 거세’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또 다른 혼혈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당시 혼혈아 존재 자체에 내재된 이러한 위험성을 우려한 나머지 ‘아이를 분실하는’ 기쿠라는 설정을 통해 그녀로부터 모성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⁷⁾

기쿠의 과도한 신체성이 주는 위화감이 클수록 오욕의 패전의식이 강조되듯이 그녀로부터 모성을 박탈함으로써 영원히 일본 땅에 정착할 수 없는 존재, 부유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점령군에 대한 종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혼혈아들은 점령 종료 이후 새로운 일본사회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아픈 과거의 폭력을 환기하는 존재였기에 ‘소거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점령군과

피점령군의 권력 관계를 남성대 여성의 신체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작용하면서 지을 수 없는 負의 역사로서 패전과 점령의 시간(흔적)을 소거해 나가고자 하는 전후일본 사회의 욕망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혈아가 아픈 과거를 환기하기 때문일까, 실제 GI-Baby에 관한 신문 보도가 1960년대 이후 간간히 검색되기는 하지만 1954년부터 그 보도열이 사그라들었다.²⁸⁾ 그나마 종종 보도되던 혼혈아에 대한 기사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점령군과 관련한 이미지가 아니라 탤런트나 모델, 그리고 스포츠선수로 활약하는 혼혈아들을 화제로 다루는 내용으로 변해간다.

27) 吉村いづみ, 「物語映画の過剰な身体」, 『名古屋文化短期大学研究紀要』 34, 名古屋文化短期大学, 2009, 1면.

28) 高崎節子 역시 “혼혈아문제 봄의 열기는 식었다. 때때로 문득 저널리즘에 등장하는 것은 미담 혹은 악담, 아니면 개개의 혼혈아를 둘러싼 문제가 뉴스 스토리 혹은 GI를 탓하거나 그 모친을 탓하거나 혹은 혼혈아를 양육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선행을 알리거나 하는 정도였다.”고 지적한다. 高崎節子, 「続・混血児」 『労災—災害補償と安全衛生』 労働協会, 1954, 10~13면.

영화 《기쿠와 이사무》의 다카하시 에미코나 와니부치 하루코(鰐淵晴子), 이리에 미키를 다룬 『해본(平凡)』(1959.11)에는 ‘혼혈도 일본인이다(混血だって日本人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주된 내용은 그들이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타자화된 경험을 다루고 있다. 또 GI-Baby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설이나 정책 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홀대받는 혼혈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혼혈아들이 등교하면 학업성적이 저하된다.”²⁹⁾며 집단거부 운동을 벌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공립소학교 PTA는 무엇보다 흑인계 혼혈을 절대 반대하고 있었다. 반면 서구에서 식인종이라고까지 불리며 차별받는 흑인계 혼혈의 비극성이 당시 국제도시로 번성한 요코하마와 고베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혼혈아 중에서도 흑인계에게 더욱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³⁰⁾

혼혈아들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는 1961년부터로 보인다. 더이상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표제어와 함께 엘리자베스 샌더스 흙의 야구부 학생들을 소개하고 있는 『주간 산케이(週刊サンケイ)』(1961.10)는 차가운 세간의 이목을 견디며 인고의 세월을 극복해 온 흑인계 혼혈아에 대한 ‘밝은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음악적으로 재능을 보이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그리고 가수 지망생이었던 다카하시 에미코와 같은 흑인계 혼혈아의 밝은 모습을 전달하며 일본사회에서 혼혈아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평론을 게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본인들이 인종편견에 대한 인식을 극복해야 할 이유로 1964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서 흑인계 혼혈아 선수들의 우수한 능력이 빛날지도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한다.³¹⁾

『주간 묘조(週刊明星)』(1961.1. 42면)는 1961년의 예능계에도 혼혈 탤런트 붐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과도 같은 내용을 시작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증명이라든가 하듯이 혼혈 탤런트들의 활약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 『주간 겐다이(週刊現代)』(1966.1)는 「이리에 미키 등 혼혈미녀 20명의 가계, ‘음지의 아이’가 황금알이 되기까지(入江美樹ら混血美女二〇人家系 ‘日陰の子’が金の卵になるまで)」라는 기사로 특집호를 꾸렸다. 혼혈 여성의 부모들을 비롯해 신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수록한 특집이

29) 『週刊サンケイ』, 「混血児にも春がきた! 小学校入学拒否騒動の舞台裏」, 1960.9(20), 20~23면.

30) 『週刊現代』, 「見捨てられた黒混血児の悲しみ」, 1960.2(28), 26~29면.

31) 『週刊サンケイ』, 「混血児16年目の笑顔 もう “戦争の落とし子” ではない」, 1961.10(37), 11~17면.

었다. “지금 예능계, 패션계는 공전의 혼혈아 붐을 이루고 있다.”고 시작되는 이 기사는 “중전 직후에 맺어진 커플 ‘사랑의 결정체’가 지금 성장해서 혼혈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며 혼혈아를 ‘사랑의 결정체’로 정의한다. 심지어 그들의 부모가 ““순혈”을 선호하는 일본의 전통 파괴의 선각자”라고까지 평가한다. ‘팡팡’이라는 말로 대표되던 그들에 대한 이전까지의 부정적 시선이 일순간에 진보적 존재로 둔갑하여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1953년에 데뷔하여 혼혈아 모델의 선구로 불리던 헬렌 히긴스(ヘレン・ヒギンス)가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지금 혼혈 붐이라고들 하는데, 분명히 우리 패션계에도 놀라울 정도로 혼혈 모델이 늘었어요. 물론 그것은 일본의 경험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초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무렵 태어난 어린이들, 특히 혼혈아들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 그만큼 이전에 혼혈 모델이 희귀했던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³²⁾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 패션계에 혼혈 모델은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한 당시 혼혈 여성 톱스타로 와니부치 하루코와 이리에 미키를 뽑았는데 “이 두 혼혈아는 모두 따뜻한 가정의 애정과 풍요로운 재산으로 스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며 그들이 특별할 수 있던 이유를 가정환경의 따뜻함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혼혈 붐의 열광 속에 있는 혼혈아들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혼혈아들이 ‘전쟁의 부산물(落とし子)’이자 소위 일본 역사의 상흔 위에서 탄생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³³⁾ 헬렌 히긴스의 ‘일본의 경험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초래한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점령기 당시에 태어난 혼혈—캐서린 미네라는 예명의 가수 기타야마 가즈코(北山和子)와 뮤지컬 댄서 마에다 비바리(前田美波里), 영화 《기쿠와 이사무》에서 기쿠 역을 한 다카하시 에미코, 재즈 가수 아오야마 미치(青山ミチ) 등—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중에서도 흑인계 혼혈아인 다카하시 에미코와 아오야마 미치는 어린 시절 검둥이라고 불리던 기억이나 ‘아이노코(손의 자, 혼혈아, 잡종이라는 뜻의 비어)’라고 놀림을 받던 기억 등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32) 『週刊現代』, 「入江美樹ら混血美女二〇人家系 ‘日陰の子’が金の卵になるまで」, 1966.1, 56면.

33) 앞의 기사, 57면.

대해 슬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출생 배경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성공스토리로 소비된다. 즉 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그저 과거일 뿐이라며 그들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어렸을 때의 경험을 마치 위기극복의 성공 사례처럼 미화하고 있다. 그리고 “예능계는 자유로운 곳으로 혼혈아에게 유리한 직장이므로 혼혈아라는 콤플렉스를 유명인이 됨으로써 씻을 수 있었으니” 앞으로 혼혈을 상품화할 기회로 삼아 희망한 미래를 설계해 갈 것을 당부한다.³⁴⁾ 혼혈 붐을 과거와 달라진 시대 상황과 관련해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을 둘러싼 차별 문제는 등한시되면서 상품으로서 다루는 무심한 의견이 아닐 수 없다. 예능계나 패션계에서 혼혈아들의 두드러진 활동은 급기야 “혼혈아가 되고 싶은 나머지 금발의 가발을 쓰고 파란색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여성”³⁵⁾들까지 등장시켰다. 백인계에 대한 선호도가 엇보이기도 하지만 혼혈아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당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통용될 정도였는데, 그만큼 미디어계에서 혼혈아를 선호하는 풍조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불우한 ‘과거를 지운’ 혼혈아에 대한 성공드라마는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일본사회의 희망적인 변화발전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변주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흑인계 혼혈에도 해당되었다. 흑인계 혼혈아(京助, 교스케)가 성장하며 겪은 주변의 차별과 소외를 신랄하게 담아내고 있는 소설 「혼혈아(混血児)」(一条明, 『小説倶楽部』 15(6), 1962)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혼혈 소년의 이야기이다. 소년 시절에 겪은 이웃의 멸시나 흑인계 혼혈로 운동이나 싸움에서 주변 아이들보다 뛰어났던 에피소드 등 당시 사회적으로 우려하던 흑인계 혼혈아의 ‘고된 성장기’가 전개된다. 열여섯의 나이에 사회에 나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폭력배로도 오해를 사는 교스케는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찾게 된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속이며 다시금 자취를 감춰버린다. 광기에 가득 차 그녀를 쫓아 나서기도 하던 교스케는 마지막에 자신을 키워준 보육원 교사 니시무라(西村)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자신이 찾은 여성이 어머니였음을 확신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그녀가 자신의 경기를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도록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내용이었다. 니시무라는 교스케가 어머니를 찾은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며 놀라는데, 그러나 그런 기적보다 더 감동할 일은 교스케의 마음가짐이라며 ‘부모는 없어도

34) 앞의 기사, 61면.

35) 清水正次郎, 「混血児になりたがる女」, 『小説倶楽部』 20(16), 1967, 270~272면.

아이는 성장한다. 힘내거라!’며 절규한다.³⁶⁾

이 소설에 대한 표제어가 “자신의 죄도 아닌데 영원히 피부색에 의해 낙인이 찍힌 숙명의 고아들이, 이제 비로소 태양을 향해 걸어나간다! 사랑과 눈물의 이색적인 대작”³⁷⁾이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교스케가 어머니를 찾게 되는 여정이 혹독한 만큼 어머니와의 조우에서 큰 감동을 준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에서 니시무라 선생이 보여준 절규는 교스케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자식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환하며 교스케의 불우했던 소년 시절을 성장드라마의 일화로 받아들이게 한다. 실제 교스케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성공할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이 눈앞에 가시화되는 듯하다. 교스케의 불우한 경험이 니시무라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읽힌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에서 니시무라는 교스케에게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며 훈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교스케는 속으로 “어느 누가 나를 일본인으로 대해줄까? 나는 내가 일본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믿음 따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걸!”³⁸⁾이라며 오히려 처참한 현실에 더욱 절망해 갔다. 결국 처음부터 교스케와 니시무라는 정서적 공감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교스케의 절망은 다른 아이들과 확연하게 다른 신체적 특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교스케를 가장 괴롭힌 원인은 어느 누구도 자신과 교감해 주지 않는 상황, ‘따스한 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고독이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 가족같던 니시무라 선생이 강요하던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교스케를 더 방황하게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게 내몰았지만, 기적같이 찾게 된 어머니가 다시 서둘러 도망을 가버리면서 교스케에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허락되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이는 교스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뒷받침해주는 뿌리(root)라는 유대감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패전 이후 폐허의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전후복원’의 신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기인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일본사회가 ‘역사 이래 미증유의’ 고도성장을 이뤄낸 성공신화와 함께 갖게 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니시무라의 절규는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 《기쿠와 이사무》에서 사회발전과 함께 소거되어

36) 一条明, 「混血児」, 『小説倶楽部』 15(6), 1962, 73면.

37) 「おのれの罪ならずして, 永久に肌の色に烙印を押された宿命の孤児たちが, 今こそ太陽に面をあげて歩く! 愛と涙の異色大作」, 앞의 책, 46면.

38) 一条明, 「混血児」, 62면.

야 할 과거로 대상화되어 모성을 박탈당하며 부유하게 되는 기쿠처럼 교스케 역시 어머니의 부재, 거부를 통해 부유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연예계의 혼혈 붐이 그들의 사회적 ‘희망적’인 수용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불우했던 과거의 소거’에 있듯이, 교스케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모성의 박탈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기원이 되는 뿌리가 소거된 것이다. 혼혈아들은 변화발전하는 일본사회에서 파편적 존재로 남게 될 뿐이다. 능력주의라는 일견 공평하고 평등해 보이는 시스템이 혼혈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한 ‘약자의 재생산’³⁹⁾으로 작용한 것이다.

IV. 소거되는 신체성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 유행하며 팬덤을 일군 만화 《불량소녀전 혼혈아 리카(不良少女伝 混血児リカ)》(集英社『週刊明星』에 1969.9-1973.11. 연재, 원작자는 凡天太郎)는 점령기에 요코스가(横須賀, 가나가와현)에서 점령군의 레이프로 태어난 혼혈아 리카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이 만화는 넓은 바닷가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홀로 쓰러져 있는 기모노 차림의 여성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이가 크로즈업되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아이(리카)가 성장하며 폭력적인 금융업자(어머니의 주변 남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게 되고 불량소녀로 변해간다. 학대받는 상황을 가엽게 여긴 한 남성의 도움으로 무술을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 그로부터도 유린당한 리카는 가출하여 야쿠자 등과 얽히기도 하지만 점차 ‘악당’인 남성들을 굴복시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복수’를 한다. 이 만화는 1970년대 제작된 핑크 폭력물로 최근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혼혈아 리카 시리즈》(1972-73)의 원작이기도 하다.⁴⁰⁾

리카의 정체성은 어려서부터 무수한 폭력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태생적 운명으로 돌리는 환경(인식)을 통해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의 어머니가 GI의 레이프로

39) 上田誠二, 「高度経済成長期前半の「混血児」教育—能力主義と自己決定の裂け目」, 『日本教育史学会紀要』 6, 日本教育史学会, 2016, 58-78면.

40) 3부작 극장판 「混血児リカ」(1972), 『混血児リカ ひとりゆくさすらい旅』(1973), 『混血児リカ ハマぐれ子守唄』(1973)에 이어 東映ピンクパイオレン스 작품의 원작이다.

리카를 낳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계속되는 남성들의 폭력을 견뎌내고 이를 운명처럼 여기듯이 리카도 사회적 약자로서 최하계층의 삶을 계승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며 악덕 업주와 야쿠자 등 약탈적이고 폭력적인 남성 무리와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요코하마를 주름잡는 불량소녀 집단의 대장이 되어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도우며 우정을 쌓고 자아를 찾아간다.



〈그림 3〉 《混血児リカ》 만화 표지와 리카

이 작품에서 리카는 혼혈아로서, 특히 흑인계 혼혈아의 신체적 특징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발차기를 주특기로 사용하고 마치 야쿠자 문신처럼 강렬한 꽃무늬의 타이트한 옷을 입은 리카의 모습이 트레이드마크로 나오는데, 그녀가 흑인계 혼혈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제목을 포함해 카바레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흑인계 혼혈로 등장하는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만화를 포함해 영화에서 리카는 당시까지 전형적으로 묘사되던 흑인계 혼혈의 이미지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압도적으로 큰 눈과 상당히 관능적으로 묘사되는 리카의 외모는 위와 같은 전사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평범한 여성 혹은 백인계 여성 자체로 보인다.⁴¹⁾

41) 오히려 미국의 핑크 폭력물 영향으로 이런 여성이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유행이 된 핑크 폭력물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함을 밝혀둔다.

또한 리카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불의(권력)에 대항하는—특히 남성에게 대한 무자비한 폭력성에 복수하는 여성으로 나온다. 따라서 작품 제목이나 리카의 이력에 애써 흑인계 혼혈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같은 시기 유행했던 소설 『인간의 증명(人間の証明)』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인 모리무라 세이치(森村誠一)의 『인간의 증명』은 일명 ‘증명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현재에도 명실상부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작품이다. 발간과 동시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 흑인계 혼혈로 나오는 ‘조니’ 역할을 실제 혼혈 남자 배우(ジョー山中)가 연기해 화제가 되었다.⁴²⁾ 이 소설에서 혼혈아 조니에 대한 묘사는 “흑인이기는 하나 아주 검은 피부 색을 가진 것은 아니며 흑인치고 키도 작은 편”이며 “동양인에 가깝다”는 정도로 인트로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기름기 없는 피부”나 “허름한 옷차림”, 조니가 살던 “뉴욕 할렘가” 등, 경제적으로 사회 최하계층에 속해 있던 조니의 삶이 불우할 수밖에 없던 혼혈아, 특히 흑인계 혼혈아의 사회적 위치를 중첩적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소설이 가도가와서점(角川書店)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될 당시, 그리고 이후 몇 번 재발간되면서 제작된 소설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角川書店
1976.1



角川文庫
1977.3



角川書店
시나리오문고판 1977

*출처 森村誠一公式サイト <http://morimuraseiichi.com>

〈그림 4〉『人間の証明』 소설 표지

42) 조 아마나카는 1946년에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흑인계 혼혈아로 본명은 아마나카 아키라(山中明)이다. 인기 뮤지션이자 배우겸 프로듀서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일본에 진주했던 아프리카계 미군 병사로 기억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화《인간의 증명》의 주제를 부르기도 했다.

소설 스토리상으로 볼 때 표지 인물은 조니 헤이워드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조니를 흑인이기는 하나 아주 검은 피부색을 가진 것은 아니고 키도 작은 편이며 동양인에 가깝다고 묘사하고 있다. 언뜻 보아도 표지 속 조니의 인상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1976년판 표지는 뒤에 점령군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함께 배치되어서 조니의 출생 배경이나 소설의 주요사건의 배경이 점령기임을 암시하는 반면, 다른 표지에서는 확연하게 흑인에 대한 인종적 묘사가 드러나 있다. 이 소설이 일본의 역사와 사회상을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전제하여 고발하는 사회파 추리소설의 대표작 중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표지의 자극적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조니와 조니의 어머니 외에도 소설 속 주요인물들이 모두 점령기에 대한 ‘괴로운’ 기억을 과거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1960년대 중후반에서 70년대로 이어지며 분출하는 일본인론, 일본문화론에 의해 견고해지는 일본인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당시 일본사회에서는 근대화 초기 메이지기에 등장했던 야마토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을 복원해 내면서 일본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찾기를 통해 긍정적인 형태로의 자기 확인적 작업이 진행되었다. 일본인의 문화, 행동, 사고양식의 독자성을 체계화, 강조하는 논의가 ‘언어·커뮤니케이션문화, 사회문화, 정신문화’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일본적(일본화) 특수성을 담론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회문화 측면에서 일본은 집단주의적이고 ‘종적(다테)’인 사회로 특징지어졌다. 이렇듯 일본 민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본열도에 대대로 생활하면서 조상으로부터 일본인의 피를 계승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일종의 인종화되는 일본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혼혈아는 철저히 배제되며 외부화된다.⁴³⁾

소설 시작 부분에서 혼혈아 조니는 사망하는데, 그 이유를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혼혈아 조니의 전면적인 대상화는 오히려 순혈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일본사회를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상으로 기능하면서 동일민족에 의한 단일국가 일본의 무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특히 단일민족신화의 정착에 따라 일본사회에서

43) 이하 소설 『인간의 증명』에 관한 일본인론 및 혼혈 표상의 의미에 관해서는 박이진, 「집합기억으로서의 '전후' 1970년대 『인간의 증명』 속 기원의 이야기」, 『일본학보』 110, 한국일본학회, 2017 참조.

제거되어야 할 이질적 존재의 하나였던 혼혈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흑인계로 집중되어 표상되는 특징이 있다.⁴⁴⁾ 흑인이라는 인종적 형상화가 아들을 버린 어머니의 위선을 신파화하는 효과를 내며 소설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혼혈의 존재는 인종주의에 기대어서 더욱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고 타자화되는 구도라 할 수 있다. ‘혼혈, 흑인, 남성성’에 대한 배제 원리는 負의 역사, 억압의 역사를 신파적 기억(empathy)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전후인식의 재담론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풍요로운 일본사회에서 미국에서 살던 조니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오는 여정은 두 번 다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의 대면이었다. 소설이 발간되고 197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은 소거되어야 할 점령기의 기억을 혼혈아라는 화신을 통해 재현하였다. 일본사회에서 혼혈아가 ‘망각된 전후’와 ‘회귀하는 전후’를 양의적으로 상기시키는 준거로 기능하면서 과거 기억을 상기시키는 상징체계로서의 혼혈아는 망령으로밖에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다.⁴⁵⁾ 따라서 소설 첫 장면에서 조니는 신체성을 상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의 존재인 것이다.

만화 《불량소년전 혼혈아 리카》로 돌아와서 리카에게 ‘백인’ 여성의 관능적인 신체성이 부여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녀의 이미지에서 흑인계 혼혈이라는 태생이 소거되는 것이다. 이는 혼혈아의 비극성을 뒷받침하던 패전과 점령이라는 負의 역사가 혼혈아의 표상에서 점차 분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로지 관능미를 발산하는 그녀의 신체성은 술집에서 스트리퍼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는 여성으로 ‘상품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리카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남성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심이 함의하는 바에 주목해 보면, 그녀의 복수는 과거 그녀의 출생과 관련해 불우했던 어머니의 비화—레이프사건을 비롯해 비슷한 처지로 위기에 빠진 거리의 친구들이 간직한 비애를 리카 자신이 떠안으면서 폭발하는 비극적 결과처럼 그려진다. GI에게 레이프당하고 버려진 어머니의 상황이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된 채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혼혈 여성의 피해한 환경이 리카에게 그대로 전이되면서 발산되는 복수의 감정이 것이다. 리카의 폭력적 복수극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원인을 『인간의 증명』에서

44) 岩淵功一編著, 『〈ハーフ〉とは誰か』, 青弓社, 2014, 42면.

45) 山本敦久, 「〈ハーフ〉の身体表象における男性性と人種化のポリティクス」, 『〈ハーフ〉とは誰か』, 青弓社, 2014, 126면.

조니가 대중에게 불러일으킨 심급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만큼 혼혈이 당시 유행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여성의 복수극으로 설정하여 비극적 사연과 자극적인 폭력 씬을 가미할 수도 있는 플롯에 ‘혼혈’이라는 태생적 비극성을 더해 과거 점령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상흔이 시간이 흘러 ‘지배욕을 가진’ 권력으로서의 현실에 대항하고 복수하며 당당하게 자신감을 찾아간다. 전후복원과 성공신화의 복합적 장치가 혼혈아 표상 속에 착종해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나 ‘흑인’이라는 이미지는 조니와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인식에 기대고 있다. 더구나 젠더의 계층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니가 신체성을 상실한 채 과거의 망령이 되었다면 리카에게서는 흑인 혼혈의 표징을 소거하여 관능적 여성의 신체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리카는 이전까지 주된 혼혈의 이미지로 묘사되던 ‘흑인계’의 표징을 지우고 백인계 혼혈이 선호되던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혼혈아에게 담겨있던 과거의 상흔은 사라지고 ‘하프’라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주가 시작된 것이다.

Ⅶ. 나가며



〈그림 5〉 Golden Half,
Yellow Saku Lambo 베스트앨범 표지

1970년대에는 이와부치 고이치(岩淵功一)와 오카무라 효에(岡村兵衛) 등에 의해 ‘하프’ 담론이 제기되었다. 1970년 아이돌 그룹 Golden Half가 등장한 이후 신문에서 혼혈 대신 하프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프의 표상에는 일본 국적의 유무는 불문하고 전후 헤게모니로 구축되어 온 일본인과 외국인 간에 태어난 대상까지 모두 아울러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일본 태생의 하프뿐 아니라 해외 태생의 하프도 포함되었다. 특히 당시 인기가 높았던 Golden Half에 대한 미디어의 언설은 패전, 빈곤, 차별과 같은 이미지를 모두 불식한 것이 특징이다. 어색한 일본어 사용이나

섹슈얼한 용모에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며 귀여운 혼혈 여성 4인방으로 불린 이 그룹의 등장으로 ‘혼혈이라고 하면 백안시하던 것은 옛날 말’이 되고 만다.⁴⁶⁾ 하프라는 표현에는 완전 새로운 이미지가 부여된 것으로 과거 혼혈아의 역사성은 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프의 표상이 상품전략의 무기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1970년대 미디어 광고이다. 특히 화장품 광고는 소비문화의 상징적 존재였는데, 여기서 하프의 이미지가 많은 기능을 하였다.⁴⁷⁾ 전후 화장품산업은 화장품 광고로 발달하는데 패션, 생활문화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제안, 의식의 계몽 등 선전업계에서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⁴⁸⁾ 특히 마에다 비바리가 모델을 한 시세이도의 ‘태양에 사랑받는 캠페인’은 건강미 넘치는 갈색으로 선풍을 한 육체가 태양 빛에 빛나고 고도성장의 레저붐을 상징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이전까지의 일본적 미적 개념을 크게 변화시켰다.⁴⁹⁾ 또한 백인 혹은 하프의 상품화에 관해 다카하시는 “미국인이나 프랑스인과 결혼한 일본인의 경우에는 그들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는 일본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서양인 부인에게 영어나 프랑스어나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형태로 사랑받았다. 혼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텔레비전 사회자, 탤런트, 광고 모델 등 백인과 함께 백인과의 혼혈이 크게 인기가 있다. 과거의 ‘아이노코’라는 호칭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은 실사회에서 일본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선망의 대상으로서는 백인 숭배 지향의 일본인에게 크게 먹히고 있다.”⁵⁰⁾고 지적한다. 하프가 일본사회에서 백인 숭배의 대상이 되어 적극적으로 상품화된 것이다.

그러나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백인 숭배 지향성은 1970년 대만의 현상이라 볼 수 없다. 근대화가 진행되며 만연했던 서양문화, 서양인에 대한

46) 『週刊サンケイ』 1971.6. 150면

47) 시세이도(資生堂)의 경우 이 시기 광고전략으로 하프를 많이 기용하였다. 1970년에는 아키야마 리사(秋山リサ)는 올리브 데오드란트 광고에서 일본식 후로(욕조)에서 엔카조의 노래에 맞춰 상품을 바르는 CM이 방영되었다.

48) 水尾順一, 『化粧品のブランド史』, 中央公論社, 1998, 111면.

49) 水尾順一, 앞의 책, 124면.

50) 高橋保, 「アジア問題における外国人」, 『講座・比較文化 アジアと日本人』, 研究社出版, 1977, 153면.

동경은 패전과 점령, 그리고 전후복원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지속된다. 負의 역사를 짊어질 대상으로 당시 혼혈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지만, 당시 수치상 더 많았던 백인계 혼혈은 간과되고 흑인계 혼혈아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이는 ‘혼혈아 문제’가 마치 흑인계 혼혈의 등장이라는 사회문제로 대표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며 자연스럽게 백인계 혼혈이 흑인계 혼혈의 비교우위에 놓이는 인종적 차별구조를 낳았다. 소위 백인계 혼혈아의 ‘비가시화’라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전후복원과 함께 ‘탈전후’를 선언하면서 ‘음지의 아이들’이었던 혼혈아들이 연예계의 황금알이 되었다며 누구나 일본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호혜적인 태도로 그들을 수용하는 듯하였지만, 여전히 혼혈아들은 ‘모성의 박탈’, ‘모성의 부재’라는 존재론적 거세로 인해 일본사회에서 파편적 존재이자 부유하는 존재로 살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도 흑인계 혼혈의 신체성이 위화감과 거부감의 무게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결국 일본사회가 과거 부정적 특수성을 긍정적 특수성으로 변주해 가며 완성해 온 성공스토리 속에서 혼혈아들은 그 기원에 대한 기억이 소거된 채 대상화되고 타자화되었다. 1970년대 유행한 새로운 형태로서의 인종화 전략이었던 일본인론에 휩싸여 외부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흑인계 혼혈아를 내세워 구축된 현대 일본사회의 혼혈아 표상체계는 사실 끊임없이 ‘백색’에 대한 지향이라는 일본사회의 욕망을 보여주며 그 저류에 서양식 인종주의의 일본식 권력화가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혼혈 붐이 하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탄생되는 구조에서 작용했던 대중들의 심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점령의 기억이라는 과거의 상흔이 혼혈아의 상징체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일본사회의 재건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일본인론의 유행처럼 사회문화적 자신감의 회복이 혼혈아 표상의 변주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차별과 편견을 단순히 서양식 인종주의의 ‘답습’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웨덴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학자 기타하라 준(北原惇)은 ‘백색’과 ‘흑색’, 그리고 ‘황색’으로 구분되는 인종적 표상을 연구해 왔다. 본인의 연구를 서양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연구성과—서양 인종주의의 색깔론을 비판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는 그는 일본의 ‘백색’ 선호를 서양에 대한 ‘同一視’로 설명한다. 그는 서양과의 동일시가 “서양이 하는 것은 일본도 한다.”⁵¹⁾는 ‘사상’으로까지 발현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예를 들어 자유민권운동도 ‘서

양이 그렇게 하니 일본도 그대로 한다'는 동일시의 결과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일견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보여주었던 서양중심주의, 근대주의 일색의 미성숙함을 비판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서양의 인종주의를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해 온 일본사회의 '신조'가 일본의 침략주의와 식민주의의 원흉이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와 근대의 일본 역사를 조사해 보면 왜 일본이 침략주의와 식민주주의의 국가가 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서양의 침략주의와 식민주의이다." 다시 말해 서양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⁵¹⁾ 과연 일본사회의 '근대 기획'이 기타하라의 말처럼 서양과 같아지고 싶던 심리적 방어기제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 인종적 편견이 여전히 심한 서양 유럽의 레이시즘을 신념으로까지 삼을 만큼 일본사회가 과거나 지금이나 '순진하다'는 시각이야말로 서양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편견이자 서양중심주의의 일면이라 하겠다.

패전 이후 '전후적 기원'을 갖는 혼혈 표상을 재편하며 등장한 하프 담론은 젠더 개념과 조우하면서 또 다른 변수를 통해 일본사회를 관통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198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드러나는 혼혈아 표상을 분석하며 다뤄보기로 한다.

투고일: 2021.07.19

심사일: 2021.08.20

게재확정일: 2021.09.03

51) 北原惇, 『黄色に描かれる西洋人—思想史としての西洋の人種主義』, 花伝社, 2007, 159면.

52) 北原惇, 앞의 책, 184면.

참고문헌

- 獅子文六, 『やっさもっさ』, 新潮社, 1955
- 草川俊, 「村の混血児」, 『グリーン・エージ』 5(1), 1955
- 今井正 監督, 《キクとイサム》, 大東映画製作, 1959
- 『週刊現代』, 「見捨てられた黒混血児の悲しみ」, 1960.2(28)
- 『週刊サンケイ』, 「混血児にも春がきた! 小学校入学拒否騒動の舞台裏」, 1960.9(20)
- 『週刊サンケイ』, 「混血児16年目の笑顔もう “戦争の落とし子” ではない!」, 1961.10(37)
- 一条明, 「混血児」, 『小説倶楽部』 15(6), 1962
- 『週刊現代』, 「入江美樹ら混血美女二〇人家系 ‘日陰の子’が金の卵になるまで」, 1966.1
- 清水正次郎, 「混血児になりたがる女」, 『小説倶楽部』 20(16), 1967
- 凡天太郎, 《不良少女伝 混血児リカ》, 集英社, 『週刊明星』, 1969.9~1973.11
- 森村誠一, 『人間の証明』, 角川書店, 1976
- 岩淵功一編著, 『<ハーフ>とは誰か』, 青弓社, 2014, 42면
- 加納実紀代, 『占領と性-政策・実体・表象』, インパクト出版会, 2007, 227면
- 北原惇, 『黄色に描かれる西洋人一思想史としての西洋の人種主義』, 花伝社, 2007, 159면
- 高橋保, 『講座・比較文化 アジアと日本人』, 研究社出版, 1977, 153면
- 高崎節子, 『労災一災害補償と安全衛生』労働協会, 1954, 10~13면
- 下地ローレンス吉孝, 『「混血」と 「日本人」: ハーフ・ダブル・ミックスの社会史』, 青土社, 2018, 15~180면
- 十返肇, 「解説」, 『やっさもっさ』, 新潮社, 1955, 349~354면
- 水尾順一, 『化粧品ブランド史』, 中央公論社, 1998, 111~124면
- 박이진, 「집합기억으로서의 ‘전후’-1970년대 『인간의 증명』 속 기원의 이야기」, 『일본학보』 110, 한국일본학회, 2017, 75~94면
- _____,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235~267면
- _____,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현대 일본 인종주의의 ‘전후적’ 기원」, 『일본문화연구』 77,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109~128면
- 上田誠二, 「高度経済成長期前半の「混血児」教育—能力主義と自己決定の裂け目」, 『日本教育史学会紀要』 6, 日本教育史学会, 2016, 58~78면
- 吉村いづみ, 「物語映画の過剰な身体」, 『名古屋文化短期大学研究紀要』 34, 名古屋文化短期大学, 2009, 1~8면

Mixed-race Children Externalization Process and Popular Culture

— Representation of Mixed-race Children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Growth

Park, Yi-jin

The mixed-race representations which is disseminated in Japanese society for 20 years from the 1952 ‘Mixed-Race Controversy’ to the 1970s, when the ‘Half Discourse’ appeared after the ‘Mixed-Race Boom’ in the 1960s, have instilled in the public a fixed perception of mixed-race children. Especially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60s, when the theories about the Japanese(*Nihonjinron*) became very popular, a new meaning was given to the Japanese. At the same time that racialization as a single ethnic group was strengthened, mixed-race children were externalized. This paper grasped such a trend as the ‘postwar origin’ of racism in contemporary Japanese, and examined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through various popular cultures.

As a result, this paper was able to focus on the public sympathy acting on the structure in which mixed-race children were reborn with the new concept of half in the 1970s. The memory of the occupation, which is a scar of the past, was deeply involved in the symbolic system of mixed-race children. Like the reconstruction and economic growth of Japanese society and the epidemic of Japanese theory, the restoration of sociocultural self-confidence was dominated by changes in the representation of mixed-race children. Through these originating issues of Japanese racism, this paper attempts to refute the argument that racis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contemporary Japan just follows Western racism.

Key Words : Japanese racism, Mixed-Race boom, Half Discourse, *Nihonjinron*, Representation of popular culture

